

buddhanews.com

# 오늘 살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허허 웃을 수 있어야

17면에서 계속

면 '한 모금도 아홉 모금이 되고, 한 모금이 천 년의 천 모금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도 천 년이 일 초가 될 수 있고, 천 년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천 년이 사흘이 될 수도 있고, 삼 개월이 될 수도 있다. 이러니 그대로, 앉았다가 모두 없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대로 여여한 것이므로 없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그 물 먹으면서, 물 한 모금 마시고는 앉아서 생각을 한 거죠.

그걸 다 생각을 하고 나니가 그때서야 물 먹기가 아주 수월했었어. 그러나 스스로 의정이 나가지 억지로 의정을 내려고 해도 아니 되고, 억지로 아니 내려고 해도 안 되고, 그냥 이 생활 자체가 그대로 공법을 배우는, 평등공법(平等空法)을 배우는 바로 우리 도량처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바빠서 이 공부를 못 해요.'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일체제불의 마음은 내 한마음이다.' 이런 노래를 여러번 잘 부르시죠?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세요. '왜 스님이 그런 가사를 써서 노래를 하게 했냐?' 하고요. 우리들의 법이 부처님의 법이지 우리들의 법을 빼놓고 부처님의 법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무효예요. 그냥.

악이 있으니까 선이 있는 거지, 생각을 해 보세요. 악이 있으니까 선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지 악이 없다면 선이라는 이름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악이 선이라는 이름을 짓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이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악도 같이 들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죠. 모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남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오늘, 되는 것도 질문하시고 안되는 것도 질문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걸 전깃줄이라고 합시다. 오신 여러분이 즐기려면, 여기 본래 있는 줄하고 맞붙어서 불이 들어왔을 뿐이지 내가 해 준 것도 없고 여러분이 한 것도 없이 불이 들어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말로 이름을 짓되 내가 한 것도 없고 내가 한 것도 없으니라. 그 반면에 네 마음 내 마음이 들어 아니 깨달아 불이 들어왔을 뿐이다.' 이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생각을 잘해서 그 나쁜 이미지를 한번 굴러서 바꾼다면 흰 물이 새 물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몸을 가지고 사시니까 '내가 뭐 이려고 저러고' 하는 데 '내가' 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공생(共生)입니다. 공생! 여러분이 공생 아닙니까? 공(空)한 공생의 개체! 그리고 공심(公心)의 개체! 개체는 하나인데 공생(共生)·공심(公心)·공체(公體)·공용(公用)·공식(公食) 하고 들어가 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양(供養)이라고 하고 공덕이라고 하죠. 공양은 한마음이신 부처님께서 공양을 받으신다 이런 겁니다. 한마음으로 들어야

니게 반야줄을 줬다면 그게 바로 공덕이 되니라. 안에 더붙어 같이 한마음이요, 밖에도 더붙어 같이 한마음이니 자리마저도 한자리다 이겁니다.

부처님이 말로만 그렇게 해 놓으신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한 지구 안에서 하나가 빠져도 아니 되리만큼 전부 서로 도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거 하는 사람이 있고, 지계권이 있으면 또 짐을 지워 가지고 갈 사람이 있고, 이사할 사람이 있으니까 이사차가 생긴 거죠. 이사차가 있으니까 이사할 사람이 생기고. 이 모두가 아주 미생물에서부터 만물이 다 서로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거든요.

라도 아리송해서 믿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참 순박하기가 한량없지 아. 그걸 믿고선 그렇게 했던 말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에 나가 보니까 요렇게 빨간 점이 있고 풍뎉이같이 생긴 요만큼씩한 거 있죠? 고런 게 그냥 함박 앉아서 진뎉물을 다 빨아 먹더랍니다. 다 빨아 먹고는 그냥 훌렁 날아가버립니다. 그래서 껌조자리가 되살아나게 되니까 '야! 이거 참 회한하구나!' 그래 가지고서 다른 것도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 해에 농사가 잘돼서 오막살이지만 우리가 보태 준 돈 조금하고 합쳐서 집을 사 가지고 나갔죠.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번 생활 속에서 전체가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항상 얘기

의 마음, 즉 채 없는 내가 그 속으로 투입이 됩니다. 내가 그랬죠? 어떤 혹성이 문제를 일으킬 때에는 하시라도 내가 그것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잘못된 사람은 잘못된 대로 주인공에 집어넣어야만 됩니다. 본인이 정신이 없어서 못할 때에는 주변에서라도 자꾸 집어넣어 줘야 된다고 이겁니다. 그래야 앞서 그 혼란스러웠던 일력 자체가 없어지고 새 입력이 들어감으로써 바뀌게 되니까 마음으로 고장난 거는 마음이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북을 두들기고 목탁을 치고 굽을 하고, 어떤 짓을 해도 그쪽에선 콧방귀 끼고 점점 더할 겁니다. 아. 그러나 얼마나 좋아요. 아무리 악한 귀신이다 할지라도 그 착한 바다와 같은 마음이 얼썩 깨안고 '야! 너

는 것 같지만, 왜 잘사는 사람은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이렇게 못살게 되나 하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한탄을 하고 그러지마는, 그게 자기가 다 만들어 놓은 일입니다. 누구한테 한가를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안다면 남을 미워할 수가 없고, 죄를 더 지을 필요도 없고, 뭐 마음을 그렇게 초조하게 가져서 내 몸을 병들게 할 것도 없고, 망했다고 그냥 돈 버리고 사람 몸뚱이 버리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버렸으면 '어, 버려졌나 보다. 네가 버려지게 했으니까 네가 또 일으켜 세우겠지.' 이렇게 태연하게 마음을 먹고 늘름하게 나간다면, 아마 주변 어디서든지 자기 주인공이 귀한 사람을 끌어들이어 만나게 해서 서로가 살게끔 됩니다.

그런데 뭐, 죽네 사네 하면서 집안의 식구들도 못살게 하고, 화가 나서 오며 가며 화염을 여기 저기다 하니가 식구들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복도 들어오려야 들어올 수가 없죠. 그 틈에 들어올 수가 있나? 오늘 살다가 이따 죽는 한이 있더라도 '허허! 웃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가 그렇게 겁나는 일입니까? 그러한 도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한해서는, 내일 죽는다고 겁안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죽게 하지도 않아요. 청개구리거든요. 이렇게 한다 하면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 하면 이렇게 하는 이치가 바로 우리들의 욕심을 버리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도 볼 수 있죠. '야, 하늘이 무너진다는데 이거 다 먹어치우고 그냥 다 써 버려라.' 이러는 사람 앞엔 정말 다 써지고 하늘이 무너지지만, 허허하... 그저 그런 거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 그대로 웃으면서 가면서, '아휴! 이따가 죽어도 상관없어. 여차피 사람이 소풍장난을 하다가 날이 저물면 다 버리고 가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남의 재산을 함부로 쓰면 어떡하나, 주인공의 재산인데.' 그렇게 하고선 아끼고 좋은 일 잘하고 살면 그 값어치가 더 들어오면서 사람 살기가 유하고 하늘이 무너지지도 않고 그러죠.

기독교에서도 불바다가 된다, 다 죽는다 이러는데, 제가 스물 몇 살부터 그러면 견데 여직껏 그래요. (대중 웃음) 허허하...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 그것이 모습이 변해서 그렇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불바다가 되고 그래서 죽는 게 아니라 자기네 마음들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마음들이 그렇게 불바다가 된다는 거죠. 이 마음의 근본은 불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험렁해지면 정말 불바다가 되는 거죠.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6년 2월 4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자기가 자기를 알기 위해 그렇게 수난을 겪지 않으면 길을 모르죠 그 수난을 겪은 게 양식이 되고 재산이 되고 공덕이 되는 거죠!

난 예전에 산에서 말입니다. 너무 춥기 때문에 가랑잎을 웅덩이에다 넣고는 그 속에 앉아서 생각을 하기를, '야! 참 회한하구나! 그 왜, 우리가 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은 다 없애고, 잘생기고 잘 살고 복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태어나서 잘 살게 하지 왜 우리같이 못난 사람, 또 보기 흉측한 벌레들이나 보기 흉측한 뱀 같은 그런 짐승들을 나오게 해서 세상천지에 이렇게 돌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가 주운 줄도 모르겠고 그냥 밤을 꼴딱 새고서 나오니까 아침에 웃음이 나오. '내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사람일까? 미쳤다고 할까?' 하는 생각이 나서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미친 사람도 아니고, 성한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알기 위해 그렇게 수난을 겪지 않으면 길을 모르죠. 그 수난을 겪은 게 양식이 되고, 재산이 되고, 공덕이 되고 그런 거죠.

이런 얘기 그전에 내가 한번 했죠. 지금 광명사(光明寺)의 마당이 그전에 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밭 사기 전에 밭을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밭에다가 깨를 담백 심어 놔두었어.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그냥 진뎉물이 함박 앉아서 깨를 못 먹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농사지는 게 다 이 모양이 풀이 됐고 벼도 시원치 않아서 일곱 식구가 굶어 죽었다고 노인네가 그래요. 그래서 관(觀)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이 껌조자리의 진뎉물도 전부 주인공 너만이 없애게 할 수 있어' 하라고 가르쳐 줬더니 그걸 믿고요, 만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웬만한 사람 같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거, 그까짓 소리 해 줬다고 그렇게 엄청난 문제를 얹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거? 아마 나부터

해 드려요? '이 몸속의 의식들을 지금 말로 따진다면 입자라고 볼 수 있다. 어떠한 고통을 받더라도 주인공을 믿고 관한다면 입자가 나가서 그 속에 자기로 들어가서 다 조절하고, 자기를 이끌어 줄 수 있다.' 마음을 그렇게 내면 그렇게 따라 주고, 마음을 저렇게 내면 저렇게 따라 주고, 마음을 엉뚱하게 내면 엉뚱하게 따라 주고 이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묘한 법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내 몸 가지고 내 몸을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해서 내 몸을 이끌어 가고, 내 식구를 이끌어 가고, 내 조상을 이끌어 가고, 내 자식을 이끌어 가고, 세세생생에 돌다가 세우려 놔다 살 수 있게끔 이끌어 가는 길은 바로 이 방법밖에 없습니 다.

그리고 앞서도 얘기해 드렸지만 모든 게 자동적으로 입력이 됐으니까, 앞서 수억겁을 거쳐 나오면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나오는 것을 현재 또 잘 생각을 해서 주인공에 다 맡기니까 그게 재입력이 되는 겁니다. 재입력이 된다면 바로 팔자 운명이나 뭐니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삭제 없어지는 거죠. 새로 입력 들어간 것만이 현실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체가 좀 퍼지고, 싸움이 없어지고, 마음이 너그러워지면서 처음에는 그걸로 다 자꾸자꾸 체험을 하게 되고 또, 자기 스스로 알게 되고 그러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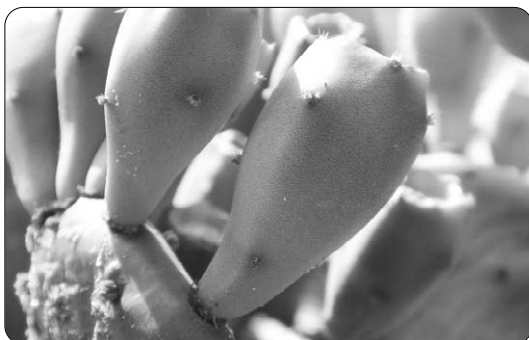
그러니 그런 게 모두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리를 알고 있어야 급하면 쓸 때도 있겠죠. 들어 보지도 못하고 먹어 보지도 못했으면 급할 때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그거를 평소에는 못 하고 안 하고 그러다가도 급하면 하게 됩니다. 생각나게 되거든요. 정 급하면 모습 없는 나

는 본래부터 나쁜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하고서 아주 아름다운 마음으로 써 싸안아 준다면, 그 마음이 일순간에 녹아지고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읽어 보니까 너무나 자기가 잘못된 사실을 알게 돼서, 그렇게 하나가 되죠. 그래서 진짜 자비는 그런 데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말로만 사랑 사랑 하지 진짜 사랑을 한다면,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자식지간에도 그렇고 보기 싫어하지 않을 겁니다. 까리끼리 만난 인연들이거든요. 우연이라는 거는 없어요. 여러분도 살아 보시지마는 노동하는 사람은 노동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하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논의하고 이러죠. 그런데 어떻게 우연이 있었습니까? 한 가족이 모이는 데도 사과는 사과대로 모이고, 금은 금대로 모이고, 은은 은대로 모여서 살고, 구리는 구리대로 모이게끔 돼 있거든요. 남자는 남대로 모이고요. 그래서 세계가 지역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런 지역에 가서 태어나는 것도 까리끼리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가서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기계에 다 넣고 큰 것 작은 것 고르고, 썩은 것 상한 것 고르고,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전부 따로따로 까리끼리 놓고 팔고 사고 그러죠?

그렇듯이 사람도 차원에 따라서 모습을 가지고 나오게 하면서, 그 차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골라져서 지금 굶어서 죽는다고 하는 나라나, 이런 나라 저런 나라에 제각기 아주 철두철미하게 태어나죠. 미국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한국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말입니다. 그렇게 아주 질서 정연하게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엉망으로 사

##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C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C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 빙의 치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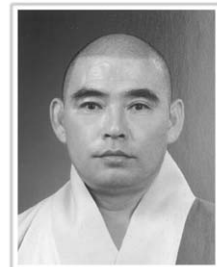
•영을 직접 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 전생체험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 치유가능한 증상들

-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 빙의, 퇴마, 최면을 배우실 분
- 자기 최면, 타인 최면을 배우실 분
-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 분(성직자 특별우대, 종교불문)
-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최면, 빙의, 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도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 최단기간 실전교육
- 최면시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 어디 아프세요. 불치병 몽땅 상담하세요.
- 하는 일마다 안풀리세요. 당신의 사주를 바꾸세요
- 빙의(귀신병) 퇴마, 최면? 100% 전수 - 치유
- 우울증, 공황장애, 산소수맥
- 비염, 발기부전 특효
- 임산부 무통분만



서울지사 :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251번지 연세빌딩 후문앞 지점사 ☎ 02)796-7579 H·P 010-3056-3315 •서울교육 : 목, 금, 토, 일 (숙식가능)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 051)364-5586 H·P 010-3056-3315 •부산교육 : 숙식가능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지 장 사 현오 합장 HTTP://WWW.JUANGSA24.ORG